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정성미·성재민*

I.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5월 말에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 2회 조사되지만 조사월이 3월과 8월로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07년 이후 실시된 3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근로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한 부문을 인적특성과 근속기간을 고려해 살펴보고, 시간제 근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추세적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II.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해 2013년 3월 현재 32.3%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2007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각 연도 3월 조사를 보면, 2008년과 2009년(국제금융위기) 연속하여 하락한 이후 뚜렷한 하락추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2013년 3월 급락하였다. 2013년 3월 임금근로자 수는 2012년 3월 대비 322천 명이 증가했는데 정규직은 400천 명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77천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jm@kli.re.kr).

비중뿐만 아니라 규모에서도 동시에 감소되었다.

세부 고용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는 2011년 3월을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3월 임금근로자의 18.8%를 차지하며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비전형 근로도 한시적 근로와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이며 2013년 3월 12.4%의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근로형태는 절대 규모도 감소했다.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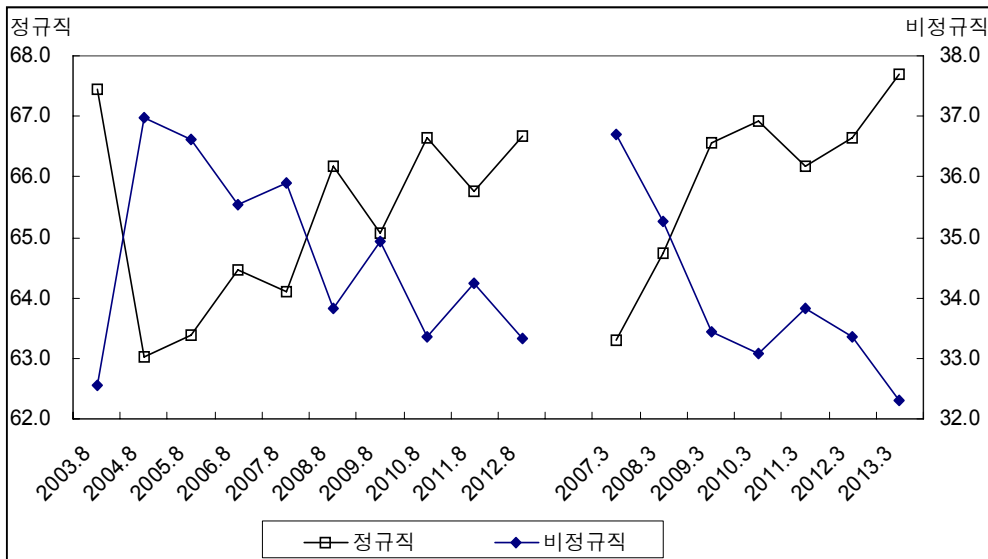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	(%)	(%)
2007. 3	15,731	9,958 (63.3)	5,773 (36.7)	3,642 (23.1)	2,244 (14.3)	1,232 (7.8)
2008. 3	15,993	10,356 (64.8)	5,638 (35.2)	3,249 (20.3)	2,330 (14.6)	1,301 (8.1)
2009. 3	16,076	10,702 (66.6)	5,373 (33.4)	3,179 (19.8)	2,165 (13.5)	1,316 (8.2)
2010. 3	16,617	11,119 (66.9)	5,498 (33.1)	3,202 (19.3)	2,178 (13.1)	1,525 (9.2)
2011. 3	17,065	11,294 (66.2)	5,771 (33.8)	3,370 (19.7)	2,311 (13.5)	1,532 (9.0)
2012. 3	17,421	11,612 (66.7)	5,809 (33.3)	3,394 (19.5)	2,260 (13.0)	1,701 (9.8)
2013. 3	17,743	12,012 (67.7)	5,732 (32.3)	3,331 (18.8)	2,208 (12.4)	1,757 (9.9)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면 시간제 근로는 2011년 3월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10%에 육박했으며, 절대 규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757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시간제 근로 규모가 비전형 근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시적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기간제 비중이 가장 큰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1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3년 기간제 근로의 규모는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p 감소했다.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의 ‘반복갱신’은 2010~2012년간 약 400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162천 명(1.0%p)이 감소해 사실상 한시적 근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복갱신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호출근로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이는 기대불가(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인데,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해 488천 명을 기록해 반복갱신의 두 배의 규모를 기록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추이를 보면 1개월 미만 계약한 초단기 기간제의 근로자 수와 비중이 2007년→2010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이후로는 기간제 근로의 6% 안팎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2013년 3월은 전년동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한 기간제 근로는 2008년 이후 꾸준히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기간제 근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1년 기간제는 2011년 51.1%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후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표 2〉 한시적 근로의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7. 3	2,614	(16.6)	547	(3.5)	481	(3.1)
2008. 3	2,293	(14.3)	229	(1.4)	727	(4.5)
2009. 3	2,560	(15.9)	23	(0.1)	596	(3.7)
2010. 3	2,389	(14.4)	326	(2.0)	487	(2.9)
2011. 3	2,465	(14.4)	461	(2.7)	444	(2.6)
2012. 3	2,554	(14.7)	411	(2.4)	429	(2.5)
2013. 3	2,594	(14.6)	249	(1.4)	488	(2.8)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명	(%)	명	(%)	명	(%)	명	(%)	명	(%)
2007. 3	615	(23.5)	722	(27.6)	850	(32.5)	427	(16.4)	0	(0.0)
2008. 3	394	(17.2)	698	(30.4)	799	(34.9)	351	(15.3)	51	(2.2)
2009. 3	350	(13.7)	867	(33.9)	942	(36.8)	320	(12.5)	81	(3.2)
2010. 3	154	(6.4)	804	(33.6)	1,171	(49.0)	227	(9.5)	34	(1.4)
2011. 3	151	(6.1)	775	(31.4)	1,260	(51.1)	239	(9.7)	41	(1.6)
2012. 3	162	(6.3)	834	(32.7)	1,270	(49.7)	225	(8.8)	63	(2.5)
2013. 3	152	(5.9)	854	(32.9)	1,284	(49.5)	225	(8.7)	78	(3.0)

주: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비중은 2007년 16.4%였으나 추세적으로 감소해 2013년은 절반인 8.7%로 감소했다. 반면 3년 초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수가 크지는 않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파견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1.1%로 200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용역 역시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3% 후반, 근로자 수는 7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7년 4.1%에서 2013년 3.1%로 감소했고, 절대 규모도 감소했다. 가내근로와 일일근로 역시 비중과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표 4〉 비전형 근로의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명	(%)	명	(%)	명	(%)	명	(%)	명	(%)
2007. 3	175	(1.1)	584	(3.7)	643	(4.1)	155	(1.0)	915	(5.8)
2008. 3	172	(1.1)	617	(3.9)	601	(3.8)	151	(0.9)	940	(5.9)
2009. 3	131	(0.8)	576	(3.6)	632	(3.9)	69	(0.4)	854	(5.3)
2010. 3	212	(1.3)	550	(3.3)	589	(3.5)	65	(0.4)	856	(5.2)
2011. 3	214	(1.3)	612	(3.6)	579	(3.4)	89	(0.5)	901	(5.3)
2012. 3	190	(1.1)	656	(3.8)	584	(3.4)	78	(0.4)	847	(4.9)
2013. 3	197	(1.1)	683	(3.8)	557	(3.1)	66	(0.4)	791	(4.5)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비정규직 중 여성, 고령자 비중 증가

<표 5>의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를 보면, 각 성별 안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2013년 3월 40.5%인 반면, 남성은 26.1%로 여성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표 5>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남성	32.6	30.8	28.2	26.8	28.0	27.1	26.1
여성	42.3	41.4	40.6	41.6	41.7	41.6	40.5
전체	36.7	35.2	33.4	33.1	33.8	33.3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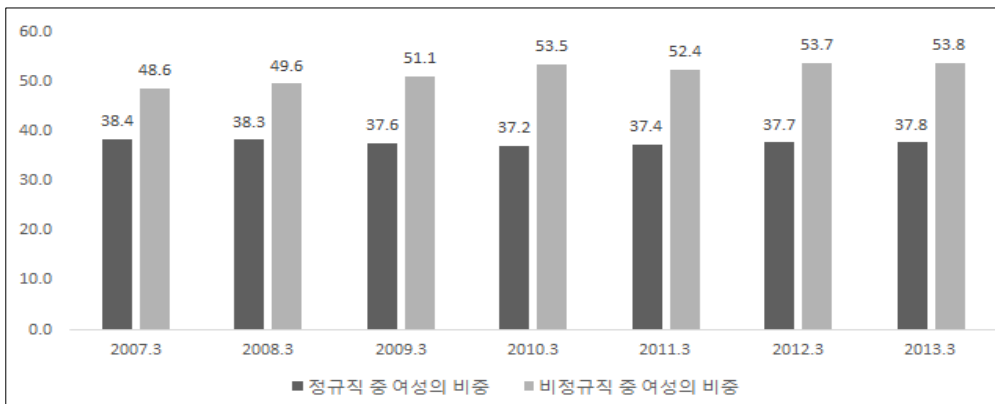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2013년 3월 37.8%인 데 반해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53.8%로 절반 이상임이 관찰된다(그림 2 참조). 특히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2007년 최고수준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3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3,084천 명)이 남성 비정규직(2,648천 명)보다 규모가 더 많다.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2007년 3월→2013년 3월 320천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은 280천 명이 증가했다.

<그림 2> 정규직/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07년 3월→2013년 3월 변화를 성별·연령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은 25~39세, 그중에서도 특히 35~39세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 반면, 45세 이상 여성 고령층에서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남성은 49세 이하는 추세적으로 감소해왔으나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여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중핵연령층, 특히 남성에서 비정규직 감소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및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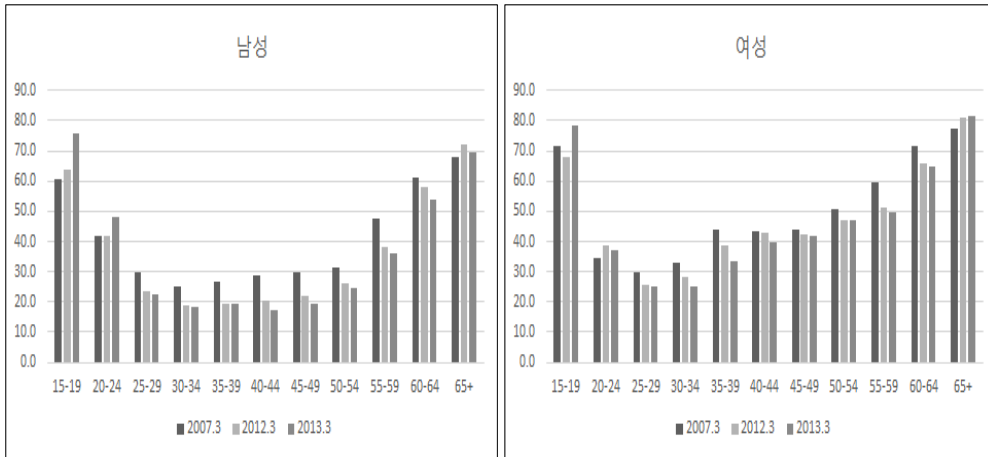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규모							증 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7 → 2013
남 성	전 체	2,968	2,843	2,626	2,554	2,750	2,690	2,648	-125	-217	-71	195	-60	-42	-320
	15~24세	220	220	186	193	237	222	259	0	-34	6	44	-15	37	39
	25~29세	384	363	330	287	274	269	249	-21	-33	-43	-13	-5	-20	-136
	30~34세	365	342	326	292	318	290	283	-24	-16	-34	25	-28	-7	-82
	35~39세	409	357	319	294	326	290	277	-52	-38	-25	32	-36	-13	-131
	40~44세	363	362	300	258	275	296	258	-1	-62	-42	17	20	-37	-105
	45~49세	344	309	301	302	300	282	254	-36	-8	2	-3	-18	-28	-90
	50~54세	256	268	259	264	299	277	287	12	-9	4	35	-23	10	31
	55~59세	246	230	218	233	261	280	294	-16	-12	15	29	19	14	48
	60세 이상	381	392	387	431	459	485	487	11	-5	44	28	25	2	106
여 성	전 체	2,805	2,794	2,748	2,943	3,021	3,119	3,084	-10	-47	195	78	98	-35	280
	15~24세	337	348	328	331	325	349	345	11	-19	2	-6	24	-4	8
	25~29세	345	314	295	313	317	283	260	-31	-19	18	4	-35	-23	-85
	30~34세	264	229	219	236	257	252	237	-35	-11	17	21	-5	-15	-27
	35~39세	386	380	333	340	325	316	265	-6	-47	6	-15	-9	-51	-121
	40~44세	385	384	404	402	416	427	390	-1	20	-1	14	11	-37	5
	45~49세	359	390	357	384	389	398	397	31	-33	27	5	9	-1	38
	50~54세	262	269	309	338	366	385	405	7	40	29	29	19	19	143
	55~59세	175	197	192	230	239	265	277	22	-5	38	8	26	12	102
	60세 이상	292	283	310	370	387	444	508	-8	27	60	17	58	64	2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그림 3]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근속연수별 비정규직의 변화

비정규직은 신규 입직자가 줄거나 평균근속기간이 줄어들 때 감소할 수 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를 신규 입직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일자리 특성상 근속이 짧은 편인 일일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신규 입직이 감소했다(표 7 참조). 신규 입직의 감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23천 명)보다는 정규직(-99천 명)에서 더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침체가 한창이던 2009년 3월과 비교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신규 입직이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견, 용역, 시간제, 반복갱신은 증가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표 8>을 통해 고용형태별로 근속기간을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 보도록 한다. 2013년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정규직은 1년 미만은 감소한 반면, 1년 이상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1년 이상 근속자는 2009년 금융위기에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년 이상 근속자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한시적 근로 가운데 기간제와 기대불가는 2013년 3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기대불가는 1년 미만 근속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해오다 2013년에 증가하였고, 1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12년 이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반복갱신은 1년 미만 근속자, 1년 이상 근속자 모두 감소하였으나 1년 이상 근속자의 감소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표 7〉 고용형태별 신규 입직자(근속기간 3개월 미만)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임금근로 전체	2,987	2,927 (-59)	2,914 (-13)	3,149 (234)	3,103 (-45)	2,932 (-171)	2,810 (-122)
정규직	924	943 (19)	886 (-56)	1,056 (170)	994 (-62)	978 (-16)	878 (-99)
비정규직	2,063	1,985 (-78)	2,028 (43)	2,093 (65)	2,110 (17)	1,955 (-155)	1,932 (-23)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976	840 (-136)	928 (88)	954 (26)	899 (-55)	858 (-31)
	기간제	799	625 (-174)	745 (119)	759 (14)	691 (-68)	709 (-16)
	반복갱신	33	12 (-21)	0 (-12)	25 (25)	41 (16)	16 (-11)
비전형 근로	기대불가	143	202 (59)	183 (-19)	170 (-14)	167 (-3)	133 (-3)
	비전형	1,076	1,066 (-10)	1,012 (-54)	1,005 (-7)	1,077 (73)	956 (-122)
	파견	52	25 (-27)	26 (1)	55 (29)	46 (-9)	47 (0)
근로	용역	149	153 (5)	115 (-38)	119 (4)	133 (14)	123 (-15)
	특수고용	153	103 (-50)	127 (23)	73 (-53)	69 (-4)	58 (-17)
	가내근로	87	62 (-25)	37 (-25)	40 (2)	49 (10)	29 (-4)
	일일근로	829	847 (18)	787 (-60)	794 (8)	855 (61)	760 (37)
시간제 근로	651	623 (-28)	670 (47)	780 (110)	768 (-12)	765 (-3)	778 (13)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시간제 근로는 1년 이상 근속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1년 미만 근속자 수가 1년 이상 근속자 수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두 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표 8〉 고용형태별 · 근속기간별 추이

(단위: 천 명)

		규 모							증 감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근로			비전 형	시간 제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근로			비전 형	시간 제
				기간 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기간 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1년 미만	2007. 3	2,769	3,284	1,355	131	318	1,481	927							
	2008. 3	2,648	3,150	1,044	39	454	1,433	949	-121	-135	-311	-92	136	-48	22
	2009. 3	2,572	3,148	1,230	7	384	1,375	983	-76	-2	186	-32	-70	-58	35
	2010. 3	2,824	3,216	1,214	83	321	1,341	1,141	252	68	-16	76	-63	-34	158
	2011. 3	2,764	3,216	1,169	120	300	1,420	1,088	-60	-0	-45	37	-21	79	-54
	2012. 3	2,777	3,103	1,188	97	264	1,334	1,149	13	-113	19	-23	-36	-86	61
	2013. 3	2,562	3,072	1,218	66	286	1,255	1,165	-215	-31	30	-31	22	-79	16
1년 이상	2007. 3	7,189	2,488	1,259	416	162	763	305							
	2008. 3	7,708	2,488	1,249	190	272	898	352	519	-1	-10	-226	110	134	47
	2009. 3	8,130	2,225	1,330	16	212	790	333	422	-262	80	-173	-60	-107	-19
	2010. 3	8,295	2,282	1,175	243	166	837	383	165	56	-155	227	-46	47	50
	2011. 3	8,530	2,555	1,296	341	144	891	444	235	273	121	98	-22	54	61
	2012. 3	8,835	2,706	1,366	314	165	926	552	305	151	71	-27	21	35	108
	2013. 3	9,449	2,660	1,376	183	202	953	592	614	-47	10	-131	37	26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시간제 근로 심층 분석

이 장에서는 비정규직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간제 근로에 대해 좀 더 분석하겠다. 2013년 3월 시간제 근로는 1,757천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73.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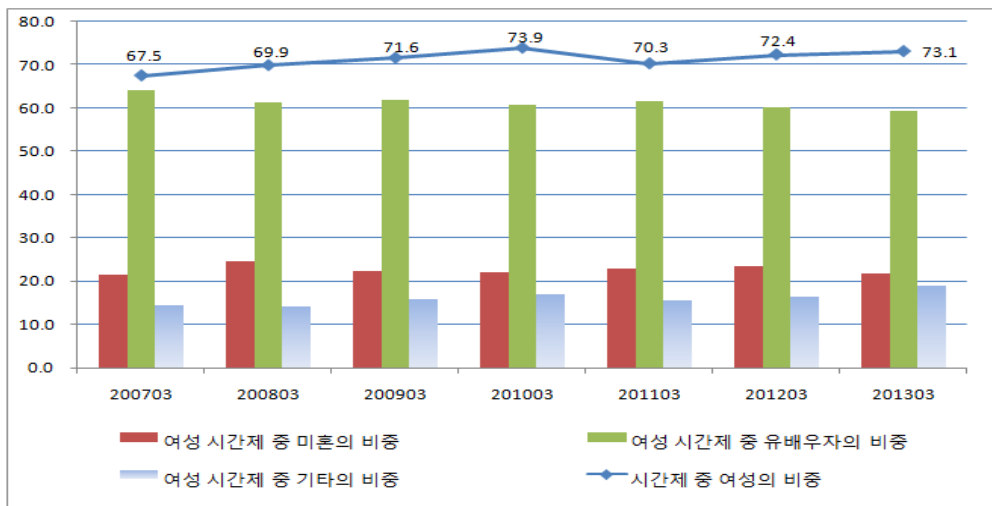
여성 시간제를 혼인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2013년 3월 기준 미혼은 21.9%, 유배우자는 59.2%, 이혼 및 사별(기타)은 18.9%인 것으로 나타나 기혼 유배우자 여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근로를 성별, 혼인여부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도록 한다(표 9 참조). 먼저 남녀 모두 미혼은 15~24세에 대부분 몰려 있고,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반면 25~39세의 미혼 시간제 근로는 많지 않은 수준이며 크게 변화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2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5~39세는 추세적인 감소세가 있는 반면, 4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남성 유배우자는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4]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 및 혼인유무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시간제 근로의 성별·혼인여부별·연령별 추이

(단위:천 명)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남성	미혼	전 체	153	182	163	166	203	203	212
		15~24세	67	90	86	89	126	118	128
		25~39세	70	74	62	60	52	69	64
		40~49세	12	15	13	15	18	13	12
		50~59세	3	2	1	2	7	3	7
		60세 이상	1	1	1	0	0	0	1
	유배우자	전 체	203	175	173	184	211	222	224
		15~24세	0	0	1	0	0	0	0
		25~39세	40	29	16	20	26	25	21
		40~49세	53	42	36	43	35	35	28
		50~59세	47	33	38	28	50	47	52
		60세 이상	63	71	82	93	100	115	123
	이혼 및 사별	전 체	46	36	39	48	43	45	35
		15~24세	0	0	0	0	0	0	0
		25~39세	2	5	3	4	0	2	1
40~49세		15	10	10	5	8	6	5	
50~59세		15	11	13	19	17	15	13	
60세 이상		14	10	13	20	18	22	16	
여성	미혼	전 체	178	224	210	250	246	289	281
		15~24세	121	158	152	168	171	196	205
		25~39세	52	56	49	73	68	80	66
		40~49세	4	7	5	7	6	6	6
		50~59세	1	3	3	1	1	5	3
		60세 이상	0	0	1	1	0	2	1
	유배우자	전 체	532	557	583	686	665	740	761
		15~24세	3	5	2	2	4	2	1
		25~39세	212	202	173	190	177	181	166
		40~49세	186	187	228	250	226	263	261
		50~59세	85	98	117	157	163	176	185
		60세 이상	46	65	63	87	95	118	148
	이혼 및 사별	전 체	120	128	150	191	166	203	243
		15~24세	0	0	0	0	0	0	0
		25~39세	6	4	10	8	6	3	3
40~49세		26	19	28	27	22	27	29	
50~59세		29	46	35	38	33	39	48	
60세 이상		59	59	77	118	105	134	1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시간제 근로의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개월)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시간제 근로 전체		11	13	11	12	14	16	18
남성	미혼	6	6	4	6	6	8	6
	유배우자	12	13	12	13	13	21	22
	기타	3	7	8	9	12	10	12
여성	미혼	6	6	6	8	7	9	10
	유배우자	14	18	14	16	20	20	24
	기타	10	21	16	10	12	17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U의 “Part-time work in Europe”(2006)을 보면 유럽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기준 통계). 우리나라도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2013년 24개월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근속기간 1년을 기준으로 혼인여부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로 시간제 분포를 분석하였다.

혼인여부별로 보면, 1년 미만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1년 이상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는 기혼 유배우자에 대부분 몰려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7년 214천 명에서 2013년 425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즉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1년 이상 근속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1년 미만 근속 시간제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007년 521천 명에서 2013년 560천 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미혼인 경우 1년 미만 근속자 수는 2007년 276천 명에서 2013년 401천 명으로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57천 명에서 92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일부 산업에 몰려 있는 것이 관찰된다. 1년 미만 근속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대부분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주로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확인된다. 세 업종 모두 2007년 이후 매우 크게 증가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아홉 배 이상 증가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도소매업의 분포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직종별로 보면,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가 몰려 있는 직종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문가는 1년 미만 근속자가 2007년 73천 명에서 2013년 148천 명으로, 1년 이상

〈표 11〉 시간제 근로의 근속기간별 특성

(단위: 천 명)

	1년 미만							1년 이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혼인 여부	미혼	276	339	319	346	373	380	401	57	67	54	70	76	111	92
	유배우자	521	486	518	599	556	584	560	214	245	237	271	318	378	425
	(남성)	(160)	(128)	(127)	(145)	(160)	(155)	(156)	(42)	(46)	(46)	(39)	(50)	(68)	(68)
	(여성)	(361)	(358)	(391)	(453)	(396)	(430)	(404)	(172)	(199)	(192)	(233)	(268)	(310)	(357)
	이혼·사별	130	124	147	197	159	185	204	35	40	42	41	49	63	75
산업	농림어업	31	32	29	30	24	21	21	0	1	1	1	2	2	1
	광업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0	71	72	70	70	52	56	1	24	14	17	19	20	23
	전기가스수도	88	10	0	0	0	4	0	23	2	0	0	0	0	0
	하수폐기물	0	0	0	0	0	1	3	1	0	0	0	0	0	0
	건설업	125	0	80	88	82	75	64	3	0	5	4	3	8	8
	도소매	148	92	162	164	178	173	162	49	4	63	80	81	93	100
	운수업	147	153	19	13	11	18	16	31	68	5	2	5	4	6
	숙박음식	16	172	190	203	186	211	232	6	33	31	36	37	47	54
	출판영상	7	14	9	11	15	11	11	3	5	2	2	5	4	8
	금융보험	9	16	4	5	5	7	6	9	8	6	9	8	16	14
	부동산임대	12	0	9	13	16	11	15	9	0	13	6	11	11	14
	전문과학기술	58	19	7	11	5	13	14	7	14	5	1	5	4	7
	사업서비스	43	50	38	45	42	46	67	29	17	15	17	23	42	36
	공공행정국방	112	0	68	115	84	112	115	79	0	37	35	38	45	54
	교육서비스	17	6	123	151	139	152	124	13	10	83	91	88	115	118
	보건사회복지	29	33	54	95	106	112	122	13	7	23	39	57	73	78
	예술스포츠	42	9	35	30	38	31	46	18	11	5	12	18	15	8
	협회단체	42	41	43	45	49	51	54	9	11	16	18	23	33	40
가구내고용	0	0	41	52	38	48	37	0	0	9	12	20	20	23	
직종	관리자	51	3	0	1	0	0	1	38	8	0	1	3	3	3
	전문가	73	25	132	167	155	173	148	55	16	90	97	113	162	151
	사무	79	45	53	60	69	71	74	47	26	42	47	56	74	85
	서비스	157	158	205	199	204	228	239	46	36	50	70	70	88	100
	판매	78	95	103	138	132	127	139	34	33	48	58	59	72	68
	농림어업숙련	7	7	3	3	3	2	4	0	0	0	0	1	0	0
	기능원	90	71	74	66	53	50	46	3	6	4	4	8	5	5
	장치기계	32	17	19	18	22	16	22	11	9	18	7	10	8	11
	단순노무	360	300	394	489	449	480	491	69	79	80	99	123	141	169
규모	1~4인	440	368	460	504	489	543	552	124	102	137	157	174	217	232
	5~9인	210	183	208	244	221	239	261	47	35	56	70	70	101	105
	10~29인	161	106	199	230	215	198	190	65	44	69	70	98	119	118
	30~100인	70	39	68	108	85	104	109	39	25	47	54	71	69	86
	100~299인	30	20	20	23	33	25	26	18	4	12	13	14	25	17
	300인 이상	16	5	29	32	44	40	26	12	4	12	20	18	21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근속자는 2007년 55천 명에서 2013년 151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비스, 판매업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규모가 1년 이상 근속자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관찰되는데 모두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시간제가 가장 많이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 근속기간으로 보면 1년 미만 근속자 수의 규모가 1년 이상 근속자 수보다 규모는 많지만, 1년 이상 근속자 수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1~4인 규모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07년 440천 명에서 2013년 552천 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 1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수도 124천 명에서 232천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5~9인 규모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가 2007년→2013년 51천 명 증가했는데, 1년 이상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는 58천 명 증가했고, 다른 규모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다.

IV.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변화

1. 임금

<표 12>와 <표 13>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시간당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근로조건은 평균적으로 하락한 특징이 관찰된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13년 3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53.3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1.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했다.¹⁾ 정규직의 임금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8~2009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10년 증가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2013년 다시 감소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5.8%로 2007년 64.2%에 비해

1) 시간당 실질임금(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각 연도 1~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평균내어 계산)으로 보더라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명목임금상승률	정규직	2.1	-0.9	2.6	-0.4	0.6	1.7
	비정규직	-3.8	-6.8	-1.3	4.3	2.4	-2.7
실질임금상승률	정규직	3.9	0.7	3.7	0.4	1.9	2.7
	비정규직	-4.4	-4.3	1.1	5.0	4.0	-2.1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과 기간제에서 월평균 임금이 감소하였고, 기대불가는 2012년 대비 5.1%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교적 월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특수고용과 파견근로는 2012년 3월 대비 임금이 감소한 반면, 용역근로(5.6%), 가내근로(4.9%), 일일근로(3.7%)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의 월평균 임금은 소폭 증가해 4.9% 증가율을 보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하여 상대임금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3월 63.5% 수준으로 2012년 3월 대비 3.1%p 감소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연속적으로 상대임금격차가 벌어지다 2011년과 2012년에 소폭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13년 들어 다시 격차가 커져 20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와 반복갱신은 2013년 3월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이 각각 3.1%p, 3.7%p 낮아졌다. 두 고용형태 모두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대임금격차가 커졌다. 한편 기대불가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2011년 이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2007년과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월평균)

(단위: 만 원,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임금근로자	172.4	181.1 (5.1)	185.4 (2.4)	194.6 (5.0)	202.6 (4.1)	211.3 (4.3)	217.1 (2.7)	
정규직	198.5	210.4 (6.0)	216.7 (3.0)	228.9 (5.7)	236.8 (3.4)	245.4 (3.7)	253.3 (3.2)	
비정규직	127.3	127.2 (-0.1)	123.2 (-3.1)	125.3 (1.6)	135.6 (8.3)	143.2 (5.6)	141.2 (-1.3)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144.2	144.1 (0.0)	140.3 (-2.6)	141.7 (0.9)	155.1 (9.5)	162.8 (5.0)	159.1 (-2.2)
	기간제	142.9	152.4 (6.6)	149.0 (-2.2)	138.4 (-7.1)	148.7 (7.5)	160.2 (7.7)	159.3 (-0.6)
	반복갱신	192.5	195.6 (1.6)	112.1 (-42.7)	217.7 (94.3)	229.4 (5.4)	222.5 (-3.0)	220.8 (-0.8)
	기대불가	96.0	102.0 (6.2)	104.3 (2.3)	106.8 (2.4)	113.4 (6.1)	120.8 (6.5)	126.9 (5.1)
비전형 근로	비전형	108.7	119.1 (9.5)	113.0 (-5.1)	121.9 (7.9)	126.6 (3.8)	134.9 (6.6)	137.0 (1.5)
	파견	132.5	148.1 (11.7)	143.2 (-3.3)	139.1 (-2.8)	146.2 (5.1)	148.5 (1.6)	144.5 (-2.7)
	용역	101.3	114.3 (12.8)	108.2 (-5.3)	116.0 (7.2)	120.1 (3.5)	125.5 (4.5)	132.5 (5.6)
	특수고용	136.1	162.3 (19.2)	145.7 (-10.2)	161.0 (10.5)	174.5 (8.4)	181.9 (4.2)	175.9 (-3.3)
	가내근로	59.6	73.1 (22.6)	55.3 (-24.3)	41.3 (-25.4)	74.2 (79.5)	60.0 (-19.1)	62.9 (4.9)
	일일근로	89.3	90.0 (0.9)	86.7 (-3.7)	94.5 (8.9)	95.5 (1.1)	107.9 (12.9)	111.9 (3.7)
기간제 근로	54.2	55.8 (3.0)	55.7 (-0.2)	55.4 (-0.6)	58.8 (6.2)	62.1 (5.6)	65.1 (4.9)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전형근로 중 용역과 일일근로를 제외한 파견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의 상대임금격차는 2012년 3월 대비 더 커졌으며, 특히 파견근로(-6.0%p)와 특수고용(-5.9%p)의 상대임금격차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용역근로를 제외한 비전형 근로에서도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봤을 때 2013년 3월 시간제 근로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54.6%)에 불과하며 2012년 3월에 비해 2.2%p 감소하였다. 또 시간제 근로의 상대임금 수준이 2007년 72.9%→2013년 54.6%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추세적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이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기대불가와 용역근로를 제외한 근로형태 모두에서 상대임금격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상대임금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커져서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²⁾가 개발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임금격차 분해를 해보았다.

〈표 13〉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단위 :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3.2	67.3	63.9	62.3	65.2	66.6	63.5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77.7	71.9	69.5	67.4	70.5	72.3	68.3
	기간제	78.2	77.4	74.0	67.4	69.3	72.8	69.7
	반복갱신	98.0	93.7	66.5	96.7	98.7	91.4	87.7
	기대불가	51.8	47.7	50.4	47.7	48.2	50.7	51.1
비전형 근로	비전형	60.4	60.4	55.4	56.2	56.8	57.9	56.5
	파견	68.5	68.9	71.3	64.5	63.2	66.8	60.8
	용역	48.5	50.4	47.7	48.8	48.6	49.2	50.6
	특수고용	80.0	84.5	73.1	75.5	81.0	80.1	74.2
	가내근로	44.6	46.7	37.0	25.8	42.9	34.9	33.8
일일근로	53.4	50.2	45.0	45.8	45.2	47.7	47.8	
시간제 근로		72.9	63.1	59.5	55.4	57.6	56.8	54.6

주: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에서 이용된 방법을 따랐다.

이 분해 방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는 관찰된 요소의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변화는 다시 분포 자체의 변화와 이 요소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으며, 미관찰된 요인의 변화도 미관찰 요인의 분포 변화와 미관찰된 요인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는 이를테면 노동시장 중핵연령대(30대나 40대 같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이들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든다면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관찰된 요소의 가격구조 변화는 이를테면 같은 30대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격구조 변화가 모두 차별의 변화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차별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별의 강화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면 가격구조 변화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관찰되지 않은 요소의 분포 변화는 회귀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가 있을 것인데 이 잔차는 회귀식에 들어간 설명변수들(관찰된 요소들)로 설명되고 남은 임금변동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설명되고 남은 임금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잔여임금격차라 하는데, 이 잔여 임금격차도 분포 변화와 가격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은 데이터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 요소가 되는데, 스펙이 좋은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변했고, 스펙이 낮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래서 정규직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고 비정규직은 과거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면 이전에는 정규직의 하위 4분위쯤 되던 비정규직 평균 잔여임금 수준이 하위 3분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분포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또는 과거보다 기업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안에서 스펙의 분포가 변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안에 스펙 좋은 사람이 많다면 정규직의 잔여평균임금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안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만 높은 임금을 받으면 정규직 안에서도 임금불평등이 증가할 것인데,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잔여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가격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비교대상 시기는 2007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로 하였다. 2008년은 내수침체가 있었던 시기로 이로 인한 고용변동이 컸다. 경기침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미 상대임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

를 감안하여 내수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3월을 비교의 시작 시점으로 삼았다.

결과를 보면 전체 변화를 100이라 볼 때 통제변수로 무엇을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구성변화효과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화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러한 증가가 차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어떤 구성요인이 중요했는지를 보면, 연령과 성별의 분포 변화만으로도 2007년

〈표 14〉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총구성변화 효과	총가격변화 효과
'07.3 ~ '13.3	연령	0.065	0.000	0.092	-0.029	0.157	-0.029
						(122.9)	(-22.9)
	연령·성	0.084	-0.003	0.070	-0.023	0.154	-0.026
						(120.3)	(-20.3)
	연령·성·학력	0.092	-0.011	0.059	-0.013	0.152	-0.024
					(118.6)	(-18.6)	
'12.3 ~ '13.3	연령·성·학력 ·근속(가)	0.107	-0.037	0.060	-0.001	0.167	-0.039
						(130.1)	(-30.1)
	(가)·직·산업	0.113	-0.025	0.041	-0.001	0.154	-0.026
						(120.3)	(-20.3)
'12.3 ~ '13.3	연령	0.017	0.001	0.033	-0.007	0.050	-0.006
						(113.7)	(-13.7)
	연령·성	0.016	-0.003	0.036	-0.005	0.052	-0.008
						(117.7)	(-17.7)
	연령·성·학력	0.018	-0.003	0.032	-0.003	0.050	-0.006
						(112.8)	(-12.8)
연령·성· 학력·근속(가)	0.023	-0.011	0.031	0.000	0.054	-0.010	
					(123.6)	(-23.6)	
(가)·직·산업	0.032	-0.013	0.023	0.001	0.055	-0.011	
					(125.6)	(-25.6)	

주: 각 연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더미, 학력은 초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단순 노무자 기준)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과 2013년 3월간 임금격차 증가분(12.8%p 단, 로그 포인트 격차임) 중 8.4%p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근속, 학력, 직·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최대 11.3%p로 약 2.9%p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았던 노동시장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의 하락,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 증대만으로도 전체 임금격차 증가분의 66%(=8.4/12.8)가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2012년 3월과 2013년 3월을 비교해 보면 연령분포 변화는 전체 격차 증가 4.4%p(이는 로그 포인트임) 중 1.7%p를 설명해 큰 설명력을 가졌다. 여기에 성별과 학력을 추가하는 것은 별 영향이 없었지만, 근속, 직·산업을 추가하면 3.2%p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력이 증가해 전체 격차 증가의 약 73%(=3.2/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보험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013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가입률이 감소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을 보면, 2013년 3월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1.3%, 비정규직은 40.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했다. 전체 고용형태 가운데 반복갱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기대불가,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는 20% 이하의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기간제, 반복갱신자, 용역근로의 가입률은 2012년 3월 대비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수준보다도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근로형태는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과 용역, 특수고용인 반면, 가내근로와 시간제 근로, 기간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3년 3월 기준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3.2%인 반면, 비정규직은 46.8%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3월 대비 정규직은 1.9%p, 비정규직은 0.3%p증가해 정규직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반복갱신, 용역근로에서 2012년 대비 소폭 감소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2007년 3.3%에서 2013년 17.2%로 13.9%p나 증가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2.1%로 전년동월대비 2.2%p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43.4%로 1.0%p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의 변화추세는 국민연금 가입률의

변화와 그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가입률이 높은 반복갱신, 기간제, 용역근로에서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파견근로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던 기대불가, 가내근로, 시간제근로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반복갱신, 특수고용을 제외한 대부분 근로형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증가했으며, 기간제, 가내근로, 시간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7	2012	2013	12→13	07→13	2007	2012	2013	12→13	07→13	2007	2012	2013	12→13	07→13	
임금근로자	62.6	66.6	67.9	1.4	5.4	63.9	69.7	71.5	1.8	7.6	55.6	61.4	62.8	1.4	7.2	
정규직	76.0	79.6	81.3	1.7	5.2	76.6	81.3	83.2	1.9	6.6	65.4	69.9	72.1	2.2	6.7	
비정규직	39.3	40.5	40.0	-0.5	0.7	41.8	46.5	46.8	0.3	4.9	38.8	44.4	43.4	-1.0	4.6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55.8	60.7	58.6	-2.1	2.7	58.9	69.1	68.0	-1.1	9.1	54.9	63.9	62.2	-1.8	7.2
	기간제	57.4	64.4	63.6	-0.7	6.2	61.2	74.2	74.7	0.5	13.5	56.5	68.2	68.0	-0.2	11.5
	반복갱신	83.8	83.3	80.2	-3.0	-3.5	85.4	86.0	83.6	-2.3	-1.7	81.8	81.8	80.3	-1.5	-1.5
	기대불가	15.4	17.4	20.7	3.3	5.3	16.2	22.6	24.3	1.7	8.1	16.2	21.5	22.0	0.5	5.8
비전형 근로	비전형	22.0	22.1	24.0	1.9	2.1	26.0	31.0	33.6	2.6	7.6	22.3	29.2	30.3	1.0	7.9
	파견	60.6	63.8	65.5	1.7	4.9	61.6	69.1	74.2	5.2	12.7	62.1	67.5	74.3	6.8	12.2
	용역	56.1	53.1	53.1	-0.0	-3.0	70.9	80.3	80.2	-0.1	9.3	57.2	67.6	66.7	-0.9	9.5
	특수고용	7.5	4.3	4.7	0.4	-2.8	7.8	6.3	6.3	-0.0	-1.5	6.8	6.7	5.8	-0.9	-1.0
	가내근로	3.3	7.0	14.7	7.7	11.4	3.3	7.0	14.5	7.4	11.2	2.7	6.7	14.7	8.0	12.0
	일일근로	0.9	0.0	0.4	0.3	-0.5	1.0	0.0	0.4	0.3	-0.6	1.2	5.7	3.3	-2.4	2.1
시간제근로	2.3	13.2	13.9	0.8	11.6	3.3	15.4	17.2	1.8	13.9	2.4	15.8	16.2	0.4	1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은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의 감소는 추세적인 특징으로 보여진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근속 1년 미만, 1년 이상 모두에서 감소했고, 특히 3개월 미만 신규 입직의 감소가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소한 비정규직 내 고용구성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적 특성으로 보면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고, 근로형태로 보면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는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간제의 경우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초단기자는 줄어들고 동시에 1개월 이상~1년의 계약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안정적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시간제 근로는 기혼 유배우자 여성의 증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1년 이상 근속하는 시간제 근로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업종에 밀집해 있었는데 주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가 있고 근속 1년 이상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남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평균적으로 하락한 특징이 나타났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고,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2013년 3월보다 감소했다. 다만, 이와 같은 임금격차 확대가 차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내 여성의 비중 증가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 주요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 하락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으로 시간제근로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1년 이상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은 2007년 3월 72.9%→2013년 3월 5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KLI**